



호랑이 해 내가 주인공

“법시·재시 아끼지 않는 보살행 실천”

■ 부산 화엄사 회주 각성 스님-38년생

1950년 음력 7월 20일, 한국전쟁이 일어난 해가 바로 경인년(庚寅年)입니다. 호랑이해 중에도 경인년은 활발하고 기세가 강한 다사다난한 해라서 잘 넘기면 국운이 상승하지만, 잘못 넘기면 국가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해입니다.

한국에는 사자가 없기 때문에 예로부터 호랑이를 백수(百獸)의 왕으로 여기고 산군(山君)으로 중하게 여겨왔습니다. 산신과 같이 호랑이를 잘 부르면 위업이 서지만, 호랑이를 부리지 못한다면 잡아먹히고 말 것입니다. 그렇듯이, 용감하고 활발한 마음가짐으로 호랑이를 마음대로 부리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스님과 불자들은 국가와 민족, 개인과 가정을 위해 성실하게 정성을 다해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언제나 남을 위해 법보시와 재보시를 아끼지 않는 보살행을 너도 나도 실천하길 기원합니다.



“불자 위해 대사회 영향력 확대해야”

■ 한국불교언론인회 공종원 전 회장-38년생

방송과 신문 매체를 비롯해 각계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불자 언론인들은 자신의 종교를 드러내는 경우가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갖기 어려운 것이 현 상황이며, 자칫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단체활동 보다는 개인적으로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인년에는 불자 언론인들이 성지순례를 비롯한 신행생활을 강화하면서 좀 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세상에 불법을 전하는데 앞장섰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조계종을 비롯한 종단들은 언론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불자 언론인들을 규합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불교포교와 관련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불교계는 불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불교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사회적인 영향력을 확대해 국민의 따뜻한 신

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발원이 있다면, 가족 모두 건강하고 새해에는 과년한 자식들이 모두 가정을 꾸려 잘 살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번뇌·망상 내려놓고 활기차게 삼시다”

■ 금강대 권탄준 대학원장-50년생

새해에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심신이 건강하고 여유 있게 살았으면 합니다. 번뇌·망상을 내려놓고 심신이 참으로 건강하고 밝게, 활기차게 살아간다면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건강하고 여유가 있어야 중증무진(重重無盡)으로 얽힌 사회도 맑고 밝게 돌아가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세계를 장엄하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경인년에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천태종립 금강대학교에 몸담고 있는 교수로서 학생들의 수행과 학업이 무르익도록 뒷받침함으로써 금강대가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발돋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는 천태종은 물론 한국불교의 세계화에도 기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화엄경 입법계품(久法界品)’을 해설한 책인 <꽃피우는 삶>이란 제목으로 출판할 예

정입니다. ‘화엄경 입법계품’을 공부하면 할수록 그 심오한 뜻이 더욱 드러나는 경이기에, 불자들과 공유하며 함께 수행하는 마음으로 책을 내고 싶습니다. 불자 여러분, 모두가 입법계품의 주인공 선재동자처럼 신심 깊게 구도의 길을 걸었으면 합니다.



“화엄사상 바탕으로 사회 하나 되길”

■ 동아대 윤리문화학과 광만연 교수-50년생

2010년 새해를 맞이해 총체적으로 양극화된 한국 사회가 불교의 화엄사상(華嚴思想)을 바탕으로 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길 발원합니다. 무엇보다 권력자들은 서민의 입장에서 정치를 풀어나가고 서민이 흘리는 억울한 눈물을 따뜻하게 닦아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불교 지도자와 불자 지성인들은 남북, 동서, 좌우로 분열된 사회갈등을 풀어나고 중도원용으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교의 화쟁(和諍)사상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세요.

개인적인 소망은 존엄사, 낙태 등 생명윤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는 요즘, 불교계에서 학자와 지도자들이 생명윤리에 관한 문제해결의 원칙을 세우고 개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불교윤리덕목’을 연구해 나갔으면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생명의 소리



“음성포교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방송인 김병조(조선대 객원교수)-50년생

2009년, 조계종 포교원에서 주최한 포교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받아 부끄럽고, 한편으로 책임감을 느낍니다. 2010년에는 불자들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불교공부에 매진하는 한편, 음성포교의 일선에서 더욱 열심히 살아가고자 합니다.

조선대 평생교육원에서 초빙교수로 재직하다, 동대학 교육대학원 초빙객원교수로 임용돼 2010년부터 교사 및 예비교사들에게 <명심보감>을 강의하게 됐습니다. 현직교사와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의하게 돼 영광스럽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명심보감>을 가르치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또한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을 내일 같이 하루하루를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의 마음으로 ‘날마다 좋은날(日日是好日)’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인년이 호랑이띠인 저의 해인만큼 부끄럽지 않은 한해가 되도록 살겠습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2010년 공덕 많이 쌓고 복덕이 귀족한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불자여러분,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마음공부하는 불자로 평정심 유지”

■ 프로골퍼 배상문-86년생

2009년에 아름다운동행 홍보대사에 임명된 배상문입니다. 아름다운동행 홍보대사 1호인만큼 더 잘 하고 싶었는데 생각만큼 많이 동참하지 못했네요. 해외에 나가라, 경기 준비하라 작년에는 마음의 여유가 부족해서 그랬는지, 사물에 자주 들리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12월 초 일본 Q스쿨을 끝으로 2009년도 시즌을 끝냈는데, 만족할만한 성적은 아니어서 올 한해의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도 기회는 있고, 내년도 전반기에 두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낸다면 그 뒤에 있는 시합도 출전 자격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또 미국에 진출하기 위한 계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마음 쓰지 않고 앞으로 남은 시합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기를 할 때도 제 종교가 많이 힘이 됩니다. 항상 마음공부하는 불자가 되어 경기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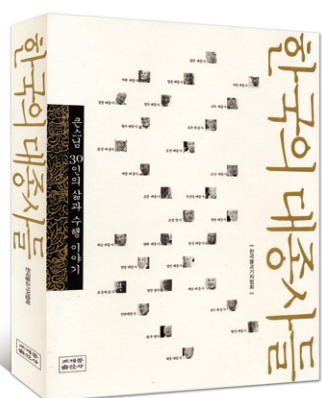
록 하겠습니다. 국내 골프 경기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으로 잘 해야 하니까 어깨 무겁기도 하지만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팬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제가 불교에서 힘을 받은 만큼 불교에 힘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승, 세상에 답하다

큰스님 30인이 들려주는,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

여기 평생을 부처님 가르침대로 올곧이 살아온 한국의 대종사 30인이 있다. 삶의 가치 기준이 흐트러지고, 생명의 존엄성이 희미해지는 이 시대, 모든 인간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깨우쳐주는 대종사 30인은 가히 우리 시대에 마지막 남은 스승이라 할만하다.



한국불교기자협회 창립 20주년 기념 도서

한국의 대종사들

- 법전 대종사, 종산 대종사, 밀문 대종사, 지중 대종사, 성수 대종사, 도견 대종사, 보성 대종사, 원명 대종사, 도문 대종사, 지관 대종사, 초우 대종사, 고산 대종사, 혜정 대종사, 원명 대종사, 활안 대종사, 진제 대종사, 혜정 대종사, 명선 대종사, 무진장 대종사, 월서 대종사, 혜승 대종사, 정무 대종사, 현해 대종사, 고우 대종사, 범봉 대종사, 설정 대종사, 광우 명사, 묘암 명사, 명성 명사, 해초 대종사

한국불교기자협회 | 396쪽 | 18,000원

문의 02.733.6390 홈페이지 www.jogyeboo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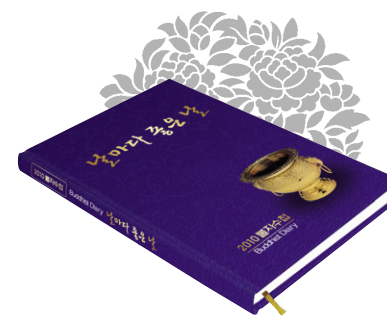
대한불교출판사

화제의 신간

대종사! 조계종에서 비구 법계의 첫째, 법랍 40년 이상의 중시 법계 수지자 중에서 특히 뛰어난 분들에게 부여된다. 명사! 조계종에서 비구니 법계의 첫째.

불교 다이어리로 소중한 인연 만들기

겨울수련회나 템플스테이 기념품, 신도회 주요 간부 등을 위한 불자 다이어리!



2010 불자수첩

날마다 좋은 날

불자들에게는 불교 다이어리가 필요합니다

- 전통 문양을 적극 활용한 격조 높은 디자인,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시침의 정경 사진, 한눈에 들어오는 연간, 월간 계획표, 신심을 키워주는 주간별 소중한 점진, 불교공동체 함양을 위한 불자생활정보

158x232 | 전면 컬러 | 12,000원

떠나는 이를 위해 수행의 마음을 내다

2009년, 종교의 벽을 넘어 고인을 기리는 추모문화로 자리 잡다!



고인의 삶과 죽음을 따뜻하고 진솔하게 다루는 의식

사십구재

효림 지음 | 164쪽 | 7,700원